

OF4 수질보존을 위한 친환경 전통 생활사 발굴 및 환경 교육자료 제작

신춘환, 배정석*

동서대학교 환경공학전공

1. 서 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생활공간의 창출”이라는 대 명제가 우리사회의 개발과 보존의 균형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적 개발과 지속 가능한 보존방법을 병행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기주의적 판단과 해석으로 인해 무늬만 화려한 제안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의 모든 것을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하는 책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데는 인색한 현실이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저 하늘의 별빛을 우리의 후손들도 볼 수 있을까”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그린 그림 속의 하늘은 검은색이었다”

“씩어버린 강물 위에 떠 오른 물고기를 보고 울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

“모기떼에 시달린 어린이들의 통통 부어오른 피부를 보라”

이 모든 것들은 개발이 불러일으킨 자연환경 피해의 심각성을 의미한다. 개발에 앞서 자연환경의 보존방법으로 “교육”, “홍보”, “기술”의 삼위일체를 들고 있다. 이들 중 교육은 다른 두 가지(홍보, 기술)에 우선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는 있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교육을 신학문 혹은 새로운 교육이라고 말하는 관념의 틀에 묶여 생활하고 있다. 과연 그러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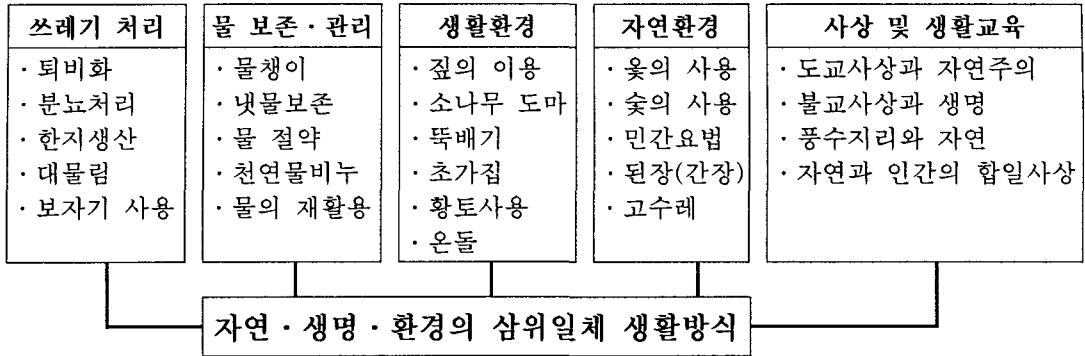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 알면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을 떠올리자. 우리의 조상들은 환경 친화적인 지혜를 발휘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었다.

- 윗마을에서 흘러버린 오물이 아랫마을의 물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 ‘물챙이’를 썼다.
- 낮 씻는 물은 많이 쓰면 쓴 만큼의 물을 저승에 가서 다 먹어야 한다.
- 냇물에 오줌을 누면 고추 끝이 부어 올라 감자고추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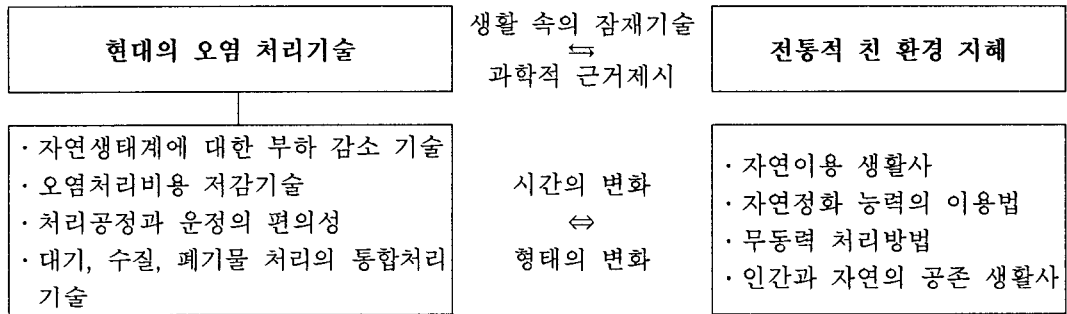
이 모두는 생활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우리 조상들의 수질보존을 위한 환경 친화적 생활습관이자 지혜였다. 이러한 수질보존을 위한 생활 속의 잠재기술을 발굴하여 현대의 수처리기술과 대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근본적인 환경교육의 자료를 제작하고자 하며 현대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의 지혜를 계몽, 확산시키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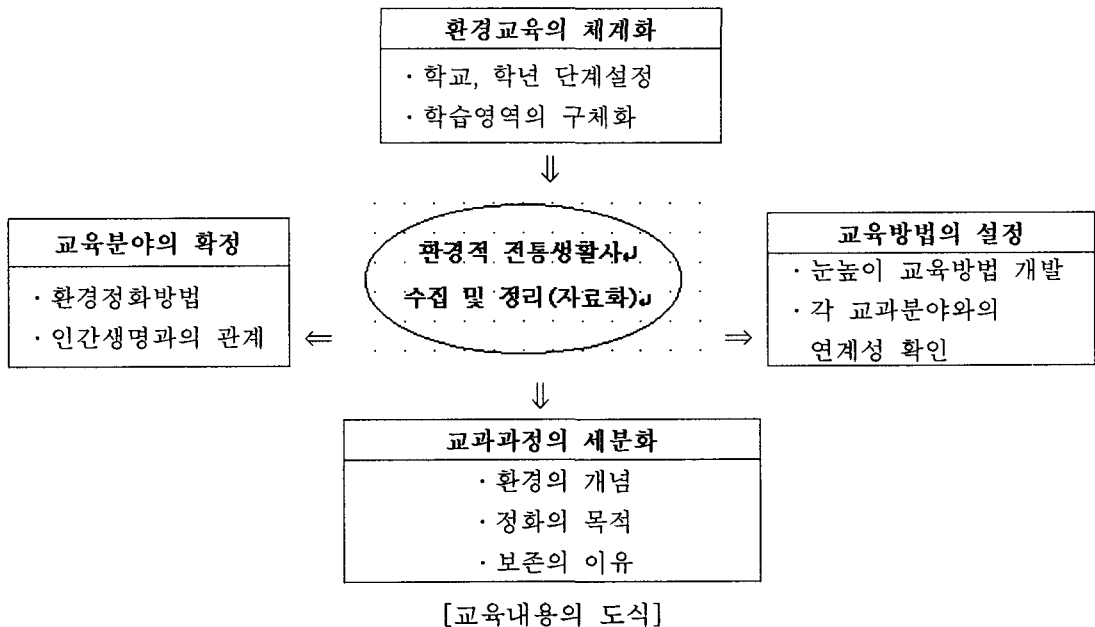
2.1 환경 친화적 전통생활의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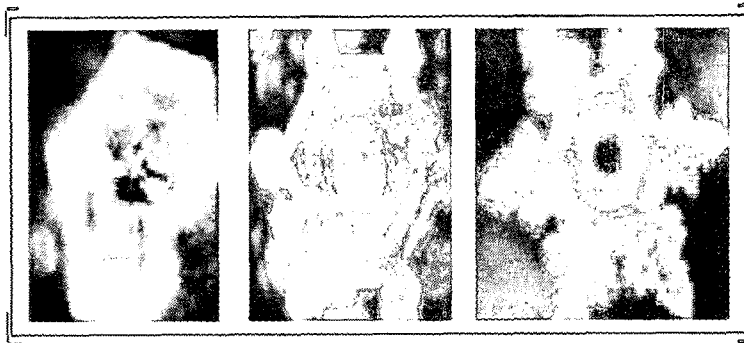
2.2 전통적 환경지혜의 과학적 근거



2.3 전통환경 교육자료 제작 기법



3.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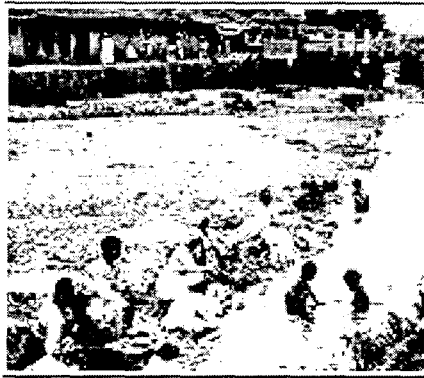


▶ 우리 선조들은 물을 맛과 빛깔, 맑기와 무게 등으로 구분하여 밥 짓는데, 차 끓이는 데, 약 달이는 데, 난 키우는데 등 용도에 따라 골라 쓸 줄을 알았다. 물의 분자구조가 육각형으로 모가 낮을 때 항암 효과가 크다고 하는 것이 현대 과학의 이론인데, 분자이론도 없던 그 시절에 이미 모난 물을 감식할 수 있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 물의 오염을 염려하는 터부도 다양했다. 냇물에 오줌을 누면 고추 끝이 부어 올라 감자 고추가 된다. 사내가 해를 보고 오줌을 누거나 계집아이가 흐르는 물에 오줌을 누면 장가가고 시집가서 아기를 못 낳는다고 했다. 또 시집가는 딸에게 아가들 기저귀는 냇물에 가서 빨지 않는 법이라고 가르쳤다. 반드시 샘물을 퍼다가 빨고, 빨고 난 물은 텃밭이나 두엄터에 버리게끔 했다. 배설물에 의한 수질 오염에 이토록 세심한 우리 조상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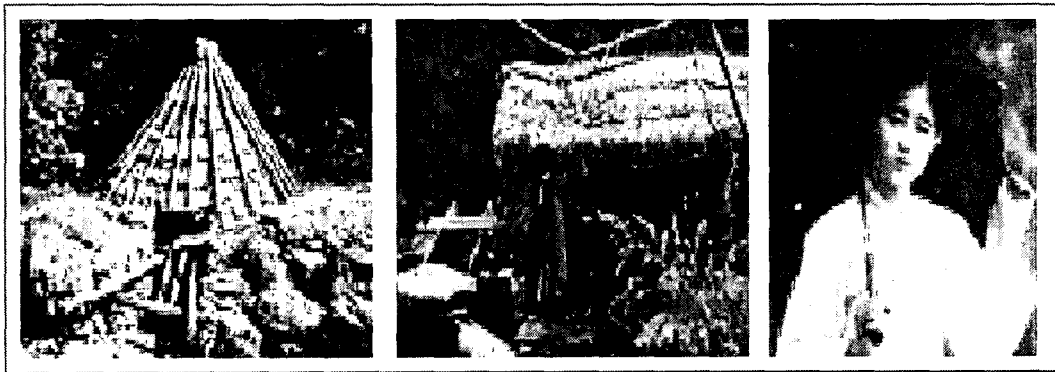
여름에는 얼굴을 주고 냇물에서 씻었는데 비누나 샴푸를 쓴 일이 없었다. 겨울에는 냇물을 길어와 데워서 씻고는 마당에 뿌렸고, 목욕한 물도 울타리 밑에 붓거나 마당에 뿌렸다. 이와 같이 조상들은 사용한 더러운 물을 냇물로 흘려 보내는 일이 없었다.



- ▶ 조상들은 빨래를 할 때 잿물을 이용하였다. 시루안에 짚을 깔고 거기에 부엌의 재를 담은 뒤, 그 위에 물을 부으면 밑으로 잿물이 나오는 것을 받았다. 이 잿물에 빨래를 삶아 냇물에 가서 빨았는데, 잿물은 물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더구나 빨래는 힘든 일이어서 자주하지 못했으니 빨래로 물을 더럽히는 일은 없었다.



- ▶ 우리 조상들은 말린 창포 잎과 흰 뿌리를 물에 우려내어 그 물로 몸을 씻으면 병마와 악귀를 쫓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는 뛰어난 색 효과와 머리에 윤기를 주는 영양효과가 있으며, 또한 은은한 향기를 갖고 있는 우수한 비누라고 한다. 얼마나 지혜로운 수질 보존 방법인가.



▶ 귀중한 옷감인 명주에는 콩가루나 녹두가루를 사용했다. '더러움이 날아가게 한다'고 하여 이 가루들을 '비루'라고 불렀는데, 오늘날의 '비누'라는 단어는 여기서 비롯된 말이다. 또한 부자들은 이 가루로 손이나 얼굴을 씻기도 했다. 이 외에도 '조두'라고 하는 녹두와 팥 등을 갈아서 만든 가루비누가 있었는데 세정뿐 아니라 미백효과가 매우 뛰어나면서도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4. 결 론

1. 물 절약, 물의 재활용에서 볼 수 있는 전통 수질보존에 관한 지혜는 현대의 중수도, 물 부족국가라는 용어와 연계하여 훌륭한 무동력 보존 기술임을 알 수 있다.
2. 물 보존을 위해서는 생활 속의 실천지혜뿐 아니라 도교사상과 자연주의 같은 정신적인 교육이 겸비되어야 효과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사의 말씀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4 Future Korea 지원사업(과제번호 : D00022)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 드립니다.

참 고 문 헌

국립 중앙과학관, 1994, 『겨레과학의 발자취(Ⅰ) : 유물로 보는 전통과학기술』
국립 중앙과학관, 1996, 『겨레과학의 발자취(Ⅱ) : 유물로 보는 전통과학기술』,
김명자, 1995, 『동서양의 과학전통과 환경운동』, 동아출판사
김정옥, 1995, 『위기의 환경 어떻게 구할 것인가?』, 푸른산

* 참고 인터넷 사이트

환경부 : <http://www.me.go.kr>

국립중앙과학관 : <http://www.science.go.kr/center>

마이더스 동아일보(동아일보 매거진) :

http://webl.donga.com/docs/magazine/new_dong.../nd99110450.htm

밀교신문속보 : <http://news.jingak.or.kr/sokbo/sokbo-1.htm>